

문화전당 앞 '제야의 종소리' 듣고 여수 향일암서 해맞이

광주·전남 '송년·새해맞이 행사' 풍성

31일 7년만에 '민주의 종' 타종...나주 관아에선 제야 북 해남군, 31일·1월1일 새해 축하 메시지·덕담 나누기 등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는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자정 7년 만에 민주의 종을 타종하고 전남도 각 시·군은 지역 명소에서 가는 해와 오는 해를 맞기 위해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에서는 오는 31일 자정 동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7년 만에 '민주의 종' 타종식이 열린다. '민주의 종'은 지난 2007년 12월 31일 제야 행사 타종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로 7년간 광주환경공단 등에 보관돼 오다 지난해 종각이 복원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1년 2월 깨진 종의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제작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전남지역 주요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개요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 프로그램
제19회 여수 향일암일출제	2014.12.31. 오후4시~2015.01.01. 오전 10시	여수시 돌산 임포마을	축하공연, 탐방객 어울마당(노래자랑 등), 제야의 종 타종식, 새해맞이 불꽃놀이, 비나리 기원 굿, 전국사친향일암대회
완도타워 2015 해맞이	2015.01.01. 오전 6시	다도해 일출공원	일출기원제, 1500인분 떡국 나눔행사, 소원성취 풍선 날리기
제19회 해남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2014.12.31. 오후 5시~2015.01.01. 오전 10시	해남 땅끝마을	해넘이 제례, 송년 페스티벌, 노래자랑, 탈집태우기, 덕담 나누기, 각설이 품바 공연
정수루 북 두드림 제야 행사	2014.12.31. 밤 8시~밤 11시40분	나주시 정수루	정수루·금성관 야간 개장, 시민 및 가수 공연, 34번 북 두드리기

광주시가 지난 2000년 11월 시민 성금(9억9000만원)으로 제작한 '민주의 종'은 3·1절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광주 시민의 날(5월 21일), 8·15 광복절, 제야(12월 31일)에 타종을 했었다.

전남도 10여개 시·군은 다양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해남군은 오는 31일과 2015년 1월1일 '제19회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를 갖는다. 축제는 땅끝전망대 해넘이 관람으로

막을 언 뒤 다음날 새벽 해맞이 정지와 새해맞이 축하 메시지 전달, 덕담 나누기로 마무리된다. 해남의 31일 일출시간은 오후 5시33분, 내년 1월1일 일출시간은 오전 7시40분이다. 여수시는 해돋이 명소인 향일암에서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여수향일암 일출제'를 개최한다. 금오산 해넘이와 제야의 종 타종식, 일출행사 등으로 나눠 치른다. 완도군은 해맞이 장소인 다도해 일출공원 내 완도타워 전망층 입장객을 외부 관광객 100명과 완도군민 50명 등 총 150명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공개모집을 마쳤다. 달이 가장 먼저 뜨는 월출산에서는 울

해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추가로 곁들여지며, 강릉 정동진, 인천 정서진, 평북 정북진과 더불어 한반도 사방진으로 꼽히는 장흥 정남진도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31일 자정 조선시대 나주목 관아 정문인 정수루(전남도 문화재자료 제86호)에서 '제야(除夜) 북 두드리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제야 행사를 위해 경관조명을 설치한 정수루와 금성관(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 일원을 야간 개방하고, 밤 8시부터 11시40분까지 다양한 공연을 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나주=손영철기자 yson@

“혁신도시에 대형 복합유통시설 유치”

입주 공공기관들 전남도에 편의시설 확충 건의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동지를 틈 입주 공공기관들이 대형 복합유통시설 유치, 대중교통망 구축, 종합병원 등 편의시설 마련 등을 전남도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18일 여수경도 리조트에서 열린 '나주혁신도시 관계기관 이전지원실무협의회'에서 한국전력 등 입주기관들이 입주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복합유통시설 유치 등을 집중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전력 등 다수 입주기관들은 “코스트코 입점 무산으로 대도시 생활을 하였던 직원들의 불편함과 상실감이 크

다”며 “레저·문화·쇼핑을 한 공간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할 수 있는 대형 복합유통시설 유치가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 또 “혁신도시에 대형복합유통시설 부지가 없어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대안부지를 조속히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빛가람 혁신도시 내에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 모두 13개 공공기관이 현재 입주를 마쳤고 자회사, 하청업체, 관공서, 학교, 협력업체 등이 뒤따라 유입

될 예정이나 병원, 경찰, 학원 뿐만 아니라 대형복합유통시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초기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기관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형 복합유통시설 입점을 위해서는 최소 3만여㎡ 이상 면적의 상업용지가 필요해 용도 변경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입주기관들은 휴일 버스 연장 운영, 배차간격 조정 등 대중교통 활성화, 혁신도시 내 명문학교와 종합병원 유치 등은 물론 주요 교차로 가로등 보강과 CCTV 운영, 공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 및 자재 야적 집중 단속, 인명구조용 고가사다리차 조기 확보 등도 건의했다. /윤현석기자chadad@

광주시민 80% “전두환 범종 환수해야”

새정치 권은희 의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광주 시민 10명 중 8명이 장성 상무대 범당에 있는 이른바 '전두환 범종'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21일 발표했다. 광주시와 육군본부 '전두환 범종'의 소유권을 각각 주장하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67.3%는 '소송을 해서라도 찾아와야 한다'고 답했다. '다른 범종으로 대체하고 찾아와야 한다'는 의견 14.2%까지 포함하면 '전두환 범종'을 찾아와야

한다는 의견은 81.5%에 달했다. 반면 장성 상무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의견은 18.5%에 불과했다. 범종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78%가 '광주시에 있다'고 생각했고 '육군본부 소유'라는 의견은 22%였다. 환수 이후 활용에 대해서는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학습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52.3%)과 '녹여서 없애야 한다'는 생각(47.7%)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권 의원실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인사이트에 의뢰, 광주시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0p%다. 권 의원은 “여론조사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전두환 범종 환수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결과를 육군본부와 국방부와 공유하고 '전두환 범종'을 환수해 오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영화 '남아, 그강을 건너지 마요' 200만 돌파 노부부의 사랑과 이별 얘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남아, 그강을 건너지 마요'가 개봉 24일째인 20일 2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영화 포스터 앞을 관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 영화의 현재 스크린 수는 669개, 상영횟수는 3336회이며, 좌석 점유율은 39.3%다. /연합뉴스

‘지록위마’(指鹿爲馬)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교수들이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를 꼽았다. 교수신문은 21일 “지난 8~17일 전국교수 7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명(27.8%)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으로 남을 속이려고 옳고 그름을 바꾸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정치

적으로는 뒷사람을 농락해 자신이 권력을 휘두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록위마는 사기(史記) 진시황본기에 나오는 사자성어다. 진시황이 죽자 환관 조고개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황제로 세우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뒤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며 “좋은 말 한 마리를 바칩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광복선 경성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2014년은 수많은 사슴이 말로 바뀐 한 해”라며 “온갖 거짓이 진실인양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사회 어느 구석에서도 말의 진짜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구사회 선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정윤희의 국정개입 사건 등을 보면 정부가 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안내

연구개발에서 제품생산까지, 생산기술혁신형 창업보육시스템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술주도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드립니다.

호남지역본부

금형시험생산(tryout)센터

- **입 주 자 격**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기업
- **모 집 분 야** 부품소재, 광에너지, 나노기술, 금형기술
- **접 수 기 간** 연중 수시 모집(2015년 1월 9일 1차 마감)
- **입 주 절 차** 입주신청서 접수(2015.1.9.) → 창보운영위원회 심의(사업타당성평가) (2015.1.20) →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계약 (2015. 2. 01.)
- **입 주 기 간** 최초 2년(1년 단위 최장 3회 연장 가능)
- **신 청 방 법** 홈페이지 (www.gjk.re.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접수는 E-mail 또는 우편접수
- **문의 및 접수처** TEL : 062)600-6423, jws1003@kitech.re.kr 500-48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창업보육센터

KITECH
한국생산기술연구원